

자 알 학 이 시 습 지 불 역 열 포  
子曰, 學而時習之<sup>면</sup>, 不亦悅乎<sup>아</sup>?

공자님 말씀하시길,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 
기쁘지 아니한가?

- 學(배울 학) -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배움
- 習(익힐 습) - 반복해서 연습하여 몸에 익힘(체득體得)
- 悅(기쁠 열) - 노력한 성과를 얻을 때의 기쁨(희열喜悅)

공부가 재미있었던 기억이 없나요? 저는 C언어를 배우고(學)

직접 프로그램을 짜보면서(習) 제대로 동작할 때의 희열(悅)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

- ✓ 子(아들 자) - '스승님'이란 뜻
- ✓ 曰(가로 왈) - 말씀하다
- ✓ 而(말이을 이) - 그리고
- ✓ 時(때 시) - 부사 때때로
- ✓ 之(갈 지) - 대명사 그것(it)
- ✓ 不(아닐 불) - 독음은 '불' 또는 '부(다음 글자가 ㄷ, ㅈ)'
- ✓ 亦(또 역) - 역시(亦是)의 역
- ✓ 乎(어조사 호) - 의문형 조사

子	曰	學	而	時	習	之	不	亦	悅	乎	
子	曰	學	而	時	習	之	不	亦	悅	乎	
子	曰	學	而	時	習	之	不	亦	悅	乎	

유 붕 자 원 방 래 불 역 락 호  
有朋이自遠方來면, 不亦樂乎아?

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?

- 朋(벗 붕) – 사회(직장) 동료. 友(벗 우, 동창)와는 다름.
- 遠(멀 원) – 먼 곳에서 부터 (from far away...)
- 方(모 방) – 여기서는 訪(찾을 방, 방문)으로 읽어야 함

“개발 좀 하신다던 데 함께 일하지 않으실래요?” 그 동안 배우고 익혀 실력이 늘고 이름이 알려져서, 나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 찾아온다면 정말 즐겁지 않을까요?

- ✓ 有(있을 유) – ‘~이 있어’는 ‘어떤 ~이’와 호환됨
- ✓ 自(스스로 자) – 전치사 ‘~부터 (from)’
- ✓ 方(모 방) – 각진 모양을 말하지만, 부사로 쓰면 ‘바야흐로’라는 뜻
- ✓ 來(올 래)
- ✓ 不(아닐 불)
- ✓ 亦(또 역) – 역시(亦是)의 역
- ✓ 樂(즐거울 락)
- ✓ 乎(어조사 호) – 의문형 조사

有	朋	自	遠	方	來	不	亦	樂	乎		
有	朋	自	遠	方	來	不	亦	樂	乎		
有	朋	自	遠	方	來	不	亦	樂	乎		

인 부 지 이 불 온 불 역 군 자 호  
 人不知而不愠, 不亦君子乎?

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, 또한  
 군자답지 아니한가?

- 人(사람 인) - '세상이' 또는 '남들이'
- 愠(성낼 온) - '화를 내다', '서운해하다' 정도로 해석
- 君子(군자) - 공자의 이상적 인간형을 말함

- ✓ 不(아닐 부) - 다음이 '지'므로 '부'
- ✓ 知(알 지)
- ✓ 而(말이을 이) - 이번엔 그러나
- ✓ 不(아닐 불)
- ✓ 亦(또 역) - 역시(亦是)의 역
- ✓ 君(임금 군)
- ✓ 子(아들 자)
- ✓ 乎(어조사 호) - 의문형 조사

연봉이 중요한가요? 승진이 중요한가요? 아니면, 내 능력과 자아실현이 중요한가요? 공자님은  
 알아주는 왕을 찾아 천하를 떠돌았지만, 진정 그를 알아준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이었죠.

人	不	知	而	不	愠	不	亦	君	子	乎	
人	不	知	而	不	愠	不	亦	君	子	乎	
人	不	知	而	不	愠	不	亦	君	子	乎	

유 자 왈 기 위 인 야 효 제 이 호 범 상 자  
有子曰, 其爲人也가 孝弟오 而好犯上者가  
鮮矣니,

유자님 말씀하시길,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  
손하면서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은 드물고,

- 有子(있을 유, 아들 자) - 공자의 제자 有若(유약)
- 弟(아우 제) - 여기서는 悌(공경할 제)로 읽어야 함
- 鮮(고울 선) - '新鮮(신선)'의 선. 신선한 생선은 드물죠.

- ✓ 曰(가로 알) - '~ 가라사대' (~가 말  
씀하시길)
- ✓ 其(그 기) - 지시 대명사 '그(the)'
- ✓ 爲人(할 위, 사람 인) - 사람됨
- ✓ 也(어조사 야)矣(어조사 의) - 별  
뜻은 없음
- ✓ 孝(효도 효) 好(좋을 호) 上(위 상)
- ✓ 犯(범할 범) - 범인(犯人)할 때 범
- ✓ 者(사람 자) - '~한 사람'(~ one)
- ✓ 鮮(고울 선) - 신선하다, 굵다, 많지  
않다.

有	子	曰	其	爲	人	也	孝	弟	而	好	犯
上	者	鮮	矣								
有	子	曰	其	爲	人	也	孝	弟	而	好	犯
上	者	鮮	矣								
有	子	曰	其	爲	人	也	孝	弟	而	好	犯
上	者	鮮	矣								

불 호 범 상 이 호 작 란 자 미 지 유 야  
 不好犯上이오 而好作亂者가 未之有也니라.

윗사람을 범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운 일을 벌이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.

- 亂(어지러운 란) – 亂場(난장), 亂理(난리), 患亂(환란)
- 未(아닐 미) – ‘아직 ~하지 않음(not yet)’

“아무튼 간에 요즘 것들은 ...” 사람이 ‘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 윗사람을 범하지 않고 또한 어지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다’는 사실은 병장(또는 과장) 달고 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.

- ✓ 不(아닐 불) 好(좋아할 호)
- ✓ 犯(범할 범) 上(위 상)
- ✓ 而(말이을 이) – 그리고/그러나
- ✓ 作(지을 작)
- ✓ 者(사람 자)
- ✓ 之(갈 지) – 그 것(不好犯上而好作亂者)
- ✓ 有(있을 유)
- ✓ 也(어조사 야)

不	好	犯	上	而	好	作	亂	者	未	之	有
也											
不	好	犯	上	而	好	作	亂	者	未	之	有
也											
不	好	犯	上	而	好	作	亂	者	未	之	有
也											



효 제 야 자 기 위 인 지 본 여  
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저.

효와 공경은 그 어짐의 근본일 것이다.

- 孝弟(효도 효, 悌 공경할 제) – 仁(인)의 핵심
- 仁(어질 인) – 仁義(인의). 道(도)를 구현하는 방법
- 爲仁之本(위인지본) – 어질게(仁) 함(爲)의(之) 근본(本).  
(The Foundation for acting Benevolently)

孝悌(효제, 효와 공경)은 仁(인)의 근본이므로 '道(도)에 이르기 위해서는 孝悌(효제)에 힘써야 한다'는 말입니다.

- ✓ 也(어조사 야)
- ✓ 者(사람 자) – 사람이 아니라 개념. '~라 하는 것(what is called ~)'
- ✓ 其(그 기)
- ✓ 爲(할 위)
- ✓ 之(갈 지) – 형용격 조사 '~의'
- ✓ 本(근본 본)
- ✓ 與(줄 여, 어조사 여) – 여기서는 뜻은 없는 조사로 사용됨

孝	弟	也	者	其	爲	仁	之	本	與		
孝	弟	也	者	其	爲	仁	之	本	與		
孝	弟	也	者	其	爲	仁	之	本	與		

자 알 교 언 령 색 선 의 인  
子曰, 巧言令色이 鮮矣仁이나라.

공자님 말씀하시길, 말을 부풀리고 표정을 꾸미는 자들치고 어진 사람은 드물다.

- 巧(공교할 교) - 巧妙(교묘)하다는 뜻인데, 여기서는 좋게 만든다(好, 좋을 호)라는 뜻.
- 令(하여금 령) - 命令(명령)처럼 시킨다는 뜻인데, 여기서는 아름답게 한다(善, 착할 선)는 뜻.

- ✓ 子(아들 자) - '子' 한글자만 쓰면 孔子(공자)님을 말함
- ✓ 曰(가로 왓) - '가로다'는 古語(고어)로 '말하다'의 뜻
- ✓ 言(말씀 언)
- ✓ 色(빛 색) - 색깔, 얼굴, 美色(미색), 불경에선 慾望(욕망)의 대상
- ✓ 鮮(고울 선) - 드물다
- ✓ 矣(어조사 의)
- ✓ 仁(어질 인)

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보게 되죠.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 지 돌아보게 됩니다.

子	曰	巧	言	令	色	鮮	矣	仁			
子	曰	巧	言	令	色	鮮	矣	仁			
子	曰	巧	言	令	色	鮮	矣	仁			



증 자 왈, 오 일 삼 성 오 신 위 인 모 이 불  
曾子曰, 吾日三省吾身<sub>하노니</sub> 爲人謀而不  
忠乎<sub>아</sub>,

증자님 말씀하시길, 나는 하루에 세가지를 성찰하는데 ① 남을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했는가,

- 謀(꾀할 모) - 남을 위해 業務(업무)/奉仕(봉사).
- 忠(충성 충) - 마음(心심)의 가운데(中중)에 둔다.

증전무님: "나는 퇴근할 때 항상 세가지를 반성(反省)해. 오늘 회사 일에 마음을 다해서 했나?"

- ✓ 曾(거듭 증) - 曾子(증자)는 공자의 首弟子(수제자). 이름은 曾參(증참)
- ✓ 吾(나 오) - 나(I), 나의(My)
- ✓ 日(가로 왈) 日(날 일) - 가로세로 비율로 결정되니 주의
- ✓ 三(석 삼) 爲(할 위)
- ✓ 省(살필 성) - 省察(성찰)
- ✓ 身(몸 신) - 吾身은 自身(자신)
- ✓ 人(사람 인) - 他人(타인)을 의미
- ✓ 謀(꾀할 모) - 圖謀(도모) 謀略(모략)
- ✓ 而(말이을 이) 不(아닐 불)
- ✓ 乎(어조사 호) - 의문형 조사

曾	子	曰	吾	日	三	省	吾	身	爲	人	謀
而	不	忠	乎								
曾	子	曰	吾	日	三	省	吾	身	爲	人	謀
而	不	忠	乎								
曾	子	曰	吾	日	三	省	吾	身	爲	人	謀
而	不	忠	乎								

1 0

- ✓ 子(아들 자) 日(가로 왓)
- ✓ 千(일천 천)
- ✓ 之(갈 지) – 형용격 조사 ‘~의’
- ✓ 國(나라 국)
- ✓ 敬(공경할 경) – 대상에 대해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함
- ✓ 事(일 사)
- ✓ 而(말이을 이)
- ✓ 信(믿을 신) – 言行一致(언행일치)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



자 하 왈 현 현 역 색 사 부 모 능  
 子夏曰, 賢賢 호대 易色 하며 事父母 호대 能  
 갈 기 력  
 竭其力 하며

자하께서 말씀하시길, 여색을 대신하여 현인을  
 존경하고 부모를 있는 힘을 다해 모시고

- 賢賢(현현, 어질 현) – 처음 것은 동사로 '존경하다' 둘  
 짝는 명사로 賢人(현인)을 의미함
- 易色(역색/이색) – 두가지로 해석이 있음 ① 女色(여색)  
 을 바꾸다(易역) ② 顏色(안색)을 편안하게 대하다(易이)

- ✓ 子夏(아들 자, 여름 하) – 공자의 제자
- ✓ 易(바꿀 역, 쉬울 이) – 뜻에 따라 독음이 다름. 交易(교역) 容易(용이)
- ✓ 事(일 사) – 여기서는 '모시다', '섬기다'의 뜻
- ✓ 父(아비 부) 母(어미 모)
- ✓ 能(능할 능) – 능히 ~하다, ~할 수 있다
- ✓ 竭(다할 갈) – 枯渴(고갈)
- ✓ 其(그 기) 力(힘 력)

子	夏	曰	賢	賢	易	色	事	父	母	能	竭
其	力										
子	夏	曰	賢	賢	易	色	事	父	母	能	竭
其	力										
子	夏	曰	賢	賢	易	色	事	父	母	能	竭
其	力										

사 군 능 지 기 신 여 붕 우 교 언 이  
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  
 유 신  
 有信 이면

임금을 온전히 몸을 바쳐 섬기고 친구와 사귄  
 때 말에 믿음이 있다면

- 致(이를 치) – 一致(일치, 하나에 이른다), 誘致(유치, 끌  
 유, 꺾어서 이르게 한다)처럼 '~에 이른다, 도착하다'의  
 뜻인데. 여기서는 委致(위치, 맡길 위, 바치다)의 의미.

- ✓ 事(모실 사) 君(임금 군)
- ✓ 能(능할 능)
- ✓ 致(이를 치)
- ✓ 其(그 기) 身(몸 신)
- ✓ 與(더불어 여) - ~와(with)
- ✓ 朋友(벗 붕, 벗 우) – 각자 뜻이 있  
 지만 합쳐서 친구/지인이라는 뜻
- ✓ 交(사귄 교)
- ✓ 言(말씀 언) 而(말이를 이)
- ✓ 有(있을 유) 信(믿을 신)

事	君	能	致	其	身	與	朋	友	交	言	而
有	信										
事	君	能	致	其	身	與	朋	友	交	言	而
有	信										
事	君	能	致	其	身	與	朋	友	交	言	而
有	信										

수 알 미 학 오 필 위 지 학 의  
 雖曰未學이라도 吾必謂之學矣라호리라.

비록 학식이 없다 말하더라도 나는 그 몸가짐이  
 바로 학문이라고 하겠다.

- 雖(비록 수) – 비록 ~하더라도. 가정(if)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.
- 之(갈 지) – 지시 대명사. '賢賢 ~ 有信'까지의 행동

- ✓ 曰(가로 알)
- ✓ 未(아닐 미) – 아직 ~하지 않음
- ✓ 學(배울 학)
- ✓ 吾(나 오)
- ✓ 必(반드시 필)
- ✓ 謂(이를 위) – '이르다', '일컫다'
- ✓ 矣(어조사 의)

"버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" "저런 못 배운 것 같으니" 배운 사람이란 '아느냐'의 문제가 아니라 '어떻게 행동하냐'의 문제라는 뜻입니다.

雖	曰	未	學	吾	必	謂	之	學	矣		
雖	曰	未	學	吾	必	謂	之	學	矣		
雖	曰	未	學	吾	必	謂	之	學	矣		

자 알 군 자 불 중 즉 불 위 학 즉 불 고  
子曰, 君子不重則不威니 學則不固 이니라

공자님 말씀하시길, 사람이 중후하지 않으면 위  
엄이 없고 학문을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.

- 則(법칙 칙) – 規則(규칙)에서 처럼 원래 '칙'이지만, 접속사인 경우 卽(곧 즉)과 같은 뜻으로 '즉'으로 읽음
- 不固(굳을 고) – 固定(고정)되지 않음. 상황에 휘둘림.
- 君子(군자) - 儒學(유학)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형. 문장 전체의 주어지만 이 구절은 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설명이고, 다음 구절이 군자에 대한 설명임

- ✓ 子(아들 자)
- ✓ 曰(가로 알)
- ✓ 君(임금 군)
- ✓ 不(아닐 불)
- ✓ 則(법칙 칙, 곧 즉)
- ✓ 重(무거울 중) – 重厚(중후)하다
- ✓ 威(위엄 위) – 威嚴(위엄)

子	曰	君	子	不	重	則	不	威	學	則	不
固											
子	曰	君	子	不	重	則	不	威	學	則	不
固											
子	曰	君	子	不	重	則	不	威	學	則	不
固											



주 충 신 무 우 불 여 기 자 과 즉 물 탄 개  
主 忠 信 無 友 不 如 己 者 過 則 勿 憚 改  
나라

(군자는) 진실과 신의로 모든 것을 대하고, 자신보다 못한 자(군자가 아닌 자)와는 사귀지 않으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.

- 無(없을 무) 勿(말 물) – 無는 '없다'는 뜻이지만 금지의 뜻(~하지 말라)의 경우 勿과 같은 뜻임
- 不如(불여) – '~보다 못하다' 매우 자주 사용되는 표현.

반대로 '~가 낫다'로 읽을 수 있음 '百聞不如一見(백문불여일견, 일견이 백문보다 낫다)'

- ✓ 主(주인 주)
- ✓ 忠(충성 충) 信(믿을 신)
- ✓ 不(아닐 불) 如(같을 여)
- ✓ 己(자기 기) 者(사람 자)
- ✓ 過(지날/허물 과) – 過去(과거) 過誤(과오)
- ✓ 則(법칙 칙, 곧 즉)
- ✓ 改(고칠 개)
- ✓ 憚(꺼릴 탄) – 忌憚(기탄, 꺼릴 기, 꺼려서 피하다)

主	忠	信	無	友	不	如	己	者	過	則	勿
憚	改										
主	忠	信	無	友	不	如	己	者	過	則	勿
憚	改										
主	忠	信	無	友	不	如	己	者	過	則	勿
憚	改										



자금 문 어 자공 왈 부자 지 어 시 방 야  
子禽이 問於子貢曰, 夫子至於是邦也하샤

자금이 자공에게 물어 말하길, 스승님께서 어떤  
나라에 가시면

- 夫子(부자, 사내 부) – 공자님을 특별히 높여 부르는 극 존칭. 중국에선 보통 孔夫子(Kǒng fūzǐ, 쿵푸즈)라고 함.
- 至(이를 지) – ‘이르다’, ‘도달하다’. 至極(지극, 다할 극, 극한에 이르다).
- 是(이 시) – 지시 대명사 이것(this)인데 여기서는 특정하는 의미 보다는 ‘어떤’ 정도로 해석

- ✓ 子禽(자금, 새 금) – 子貢(자공)의 제자로 추정됨
- ✓ 問(물을 문)
- ✓ 於(어조사 어) – 전치사 ‘~에’(at)
- ✓ 子貢(자공, 바칠 공) – 공자의 제자
- ✓ 曰(가로 알)
- ✓ 邦(나라 방) – 聯邦(연방)友邦(우방)
- ✓ 也(어조사 야)

子	禽	問	於	子	貢	曰	夫	子	至	於	是
邦	也										
子	禽	問	於	子	貢	曰	夫	子	至	於	是
邦	也										
子	禽	問	於	子	貢	曰	夫	子	至	於	是
邦	也										

- ✓ 必(반드시 필)
- ✓ 聞(들을 문, hear) – 問(물을 문, ask)과 혼동 주의
- ✓ 其(그 기) 政(정사 정)
- ✓ 求(구할 구)
- ✓ 之(갈 지) – 대명사 (聞其政)
- ✓ 抑(누를 억) – 접속사 ‘~아니면’

[illegible]

자 공 왈 부 자 은 량 공 겸 양 이 득 지  
子貢曰，夫子는 溫良恭儉讓以得之<sub>시니</sub>

자공이 말씀하시길, 스승님은 온순하고 선량하  
고 공손하고 겸양함으로 듣게 되시는 것이니

- 儉讓(검소할 검, 사양할 양) – 문맥상 儉은 '절제한다'로  
봐야 하므로 謙讓(겸양)으로 해석
- 以(써 이) – '~로써(using)'의 뜻인데 전치사(以+수단+동  
사)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접속사(수단+以+동사)로 사용  
될 수도 있음. 以夷制夷(이이제이, 오랑캐 이, 제한할 제, 적으로 적을 제압함)

- ✓ 子貢(자공, 바칠 공) 曰(가로 알)
- ✓ 溫(따뜻할 온) – 溫和(온화), 溫順  
(온순), 溫暖(온난) 등
- ✓ 良(어질 량) – 善良(선량), 優良(우  
량) 良質(양질) 등
- ✓ 恭(공손할 공) – 恭遜(공손), 恭敬  
(공경) 등
- ✓ 得(얻을 득)
- ✓ 之(갈 지) – 대명사 (聞其政)

子	貢	曰	夫	子	溫	良	恭	儉	讓	以	得
之											
子	貢	曰	夫	子	溫	良	恭	儉	讓	以	得
之											
子	貢	曰	夫	子	溫	良	恭	儉	讓	以	得
之											

부 자 지 구 지 야 기 저 이 호 인 지 구 지 여  
夫子之求之也<sub>는</sub> 其諸異乎人之求之與<sub>인</sub>

저.

보통 사람들이 찾는 것과 스승님이 찾는 것은  
다른 것이라네.

- ✓ 夫(사내/지아비 부) 子(아들 자)
- ✓ 求(구할 구)
- ✓ 也(어조사 야)
- ✓ 異(다를 이)
- ✓ 人(사람 인) – 他人(타인)
- ✓ 與(어조사 여)

- 夫子之求之(부자지구지), 人之求之(인지구지) – 첫번째 之는 '~의' 두번째는 그것(聞其政)
- 諸(모두 제, 어조사 저) – '모두', '여러'의 뜻일때는 '제'로 읽으나 '之於(지어, 그것을 ~에)'의 축약일 때는 '저'로 읽음. 其諸(기저)는 '대개 ~아니겠는가?' 정도의 뜻
- 乎(어조사 호) – 전치사 於(어조사 어, ~에)와 같음. 타인의 구함(人之求之)에(乎) 다름(異).

夫	子	之	求	之	也	其	諸	異	乎	人	之
求	之	與									
夫	子	之	求	之	也	其	諸	異	乎	人	之
求	之	與									
夫	子	之	求	之	也	其	諸	異	乎	人	之
求	之	與									

- ✓ 子(아들 자) 曰(가로 알)
- ✓ 父(아비 부)
- ✓ 其(그 기)
- ✓ 志(뜻 지)
- ✓ 行(다닐 행)

- 在(있을 재) – 存在(존재), 有(있을/가질 유) – 所有(소유)
- 觀(볼/살필 관) – 觀察(관찰), 觀照(관조), 觀點(관점). 주로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는 것 또는 상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함
- 沒(잠길 몰) – 원래 沈沒(침몰)의 뜻. 여기서 '죽다'의 뜻. 崩(무너질 붕, 왕의 죽음) 卒(마칠 졸, 사대부의 죽음) 亡(망할 망, 亡者망자), 逝(갈 서, 逝去서거), 終(마칠 종, 臨終임종)

[illegible]

삼 년 을 무 개 어 부 지 도 가 위 효 의  
三年을 無改於父之道이라사 可謂孝矣니라.

3년동안 아버지의 뜻을 바꾸지 않으면 효라고 할만하다.

- 可(옳을 가) - 可能(가능). 可+동사 형태로 '~할 수 있다'는 표현. 과거 '可히 ~' 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온 것.

三年喪(삼년상)은 공자 이전부터 존재했던 예법인데 3년동안 상을 치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악인이었고 아들이 선량한 사람이라면 효를 위해 3년동안 악행을 해야 하나요?

- ✓ 三(석 삼) 年(해 년)
- ✓ 無(없을 무) 改(고치다)
- ✓ 於(어조사 어) - ~에서
- ✓ 父(아비 부)
- ✓ 之(갈 지) - ~의
- ✓ 道(길 도)
- ✓ 謂(이를 위) - 일컫다
- ✓ 孝(효도 효) 矣(어조사 의)

三	年	無	改	於	父	之	道	可	謂	孝	矣
三	年	無	改	於	父	之	道	可	謂	孝	矣
三	年	無	改	於	父	之	道	可	謂	孝	矣



유 자 왈 예 지 용 화 위 귀 선 왕 지 도  
有子曰, 禮之用이 和爲貴 하니 先王之道가  
사 위 미 소 대 유 지  
斯爲美라 小大由之니라.

유자님 말씀하시길, 예의 적용에는 조화가 중요  
하니, 선왕의 도에서는 이를 중시했고 작은 일  
과 큰일 모두 이에 따랐다.

- ✓ 有子曰(있을 유, 아들 자, 가로 왈)
- ✓ 之(갈 지) - ~의, 用(쓸 용)
- ✓ 爲(할 위) - ~로서 ~를 함
- ✓ 貴(귀할 귀)
- ✓ 斯(이 사) - 이것(this)
- ✓ 美(아름다울 미)
- ✓ 小大(작을 소, 클 대)
- ✓ 由之(말미암을 유) - 그것(和)에 말미암는다.

- 和(화할 화) - 禮(예도 레)의 본질. 從容不迫(종용불박, 따를 중, 얼굴 용, 핍박할 박,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음)
- 先王之道(먼저 선, 임금 왕, 길 도) - 堯舜(요임금 요, 순임금 순)의 정치 철학을 말함.

有	子	曰	禮	之	用	和	爲	貴	先	王	之
道	斯	爲	美	小	大	由	之				
有	子	曰	禮	之	用	和	爲	貴	先	王	之
道	斯	爲	美	小	大	由	之				
有	子	曰	禮	之	用	和	爲	貴	先	王	之
道	斯	爲	美	小	大	由	之				

유 소 불 행 지 와 이 와 불 이 예 절 지  
 有所不行 知和而和 不以禮節之  
 역 불 가 행  
 亦不可行 이니라.

- ✓ 有(있을 유) 不(아닐 불) 行(할 행)
- ✓ 知(알 지) 和(화할 화)
- ✓ 而(말이을 이)
- ✓ 以(써 이) 禮(예도 예) 節(아낄 절)
- ✓ 之(갈 지) - 그 것(行)을 절제
- ✓ 亦(또 역) 可(옳을 가)

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조화만을 추구하고  
 예로써 절제하지 않으면 또한 이를 수 없다.

- 所(바 소) - 所+동사/형용사 형태로 '~한 것'이란 뜻으로 매우 자주 사용되는 표현.

禮(예)와 節(절)이 왜 항상 같이 언급되는 지에 대한 설명입니다. 和(조화로움, 자연스러움, 禮의 목적)가 본질이지만 節制(절제, 禮의 조건)되지 않으면 禮가 아니라는 말이죠.

有	所	不	行	知	和	而	和	不	以	禮	節
之	亦	不	可	行							
有	所	不	行	知	和	而	和	不	以	禮	節
之	亦	不	可	行							
有	所	不	行	知	和	而	和	不	以	禮	節
之	亦	不	可	行							

27

공 근 어 례 원 지 욱 야 인 불 실 기 친  
 恭近於禮면 遠恥辱也며 因不失其親이면  
 역 가 중 야  
 亦可宗也니라.

- ✓ 恭(공손할 공) 禮(에도 례)
- ✓ 近(가까울 근) 遠(멀 원)
- ✓ 恥(부끄러울 치) 辱(욕될 욱)
- ✓ 不(아닐 불) 失(잃을 실)
- ✓ 其(그 기) 親(가까울 친)
- ✓ 亦(또 역) 也(어조사 야)
- ✓ 可(옳을 가) - 가능. ~할 수 있다.
- ✓ 宗(오름 중)

공손함이 예에 맞아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, (주군이 되어서) 가까운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주군이라 할 수 있다.

- 因(인할 인) - 원래 原因(원인)을 말하는데, 여기서는 依支(의지)한다는 의미로 해석.

유상무님: "굽혀도 예절에 맞게 한다면 그건 아부가 아니야. 팀장이면 팀원의 신망을 잃지 않아야 팀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야."

恭	近	於	禮	遠	恥	辱	也	因	不	失	其
親	亦	可	宗	也							
恭	近	於	禮	遠	恥	辱	也	因	不	失	其
親	亦	可	宗	也							
恭	近	於	禮	遠	恥	辱	也	因	不	失	其
親	亦	可	宗	也							

자 알 군 자 식 무 구 포 거 무 구 안  
 子曰, 君子食無求飽<sub>하며</sub> 居無求安<sub>하며</sub>

- ✓ 子曰(아들 자, 가로 알)
- ✓ 君子(임금 군) - 이상적 인간형
- ✓ 求(구할 구) 飽(배부를 포)
- ✓ 居(살 거) - 居住(거주)
- ✓ 安(편안할 안)

공자님 말씀하시길,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, 삶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,

- 無(없을 무) - 禁止(금지). '~하지 말아야 한다'
- 食(먹을 식, 밥/먹일 사) - 동사 '먹다'는 '식', 명사 '밥'일 경우와 '먹이다'라는 사동사(使動詞)일 경우는 '사'인데. 여기서는 '먹일 사'로 볼 수도 있음. 食(身而)無求飽(몸을 먹이되 ~)

유학은 불교처럼 苦行(고행)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. 배부름이나 편안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, 배부름이나 편안함 같은 육체적 즐거움을 넘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.

子	曰	君	子	食	無	求	飽	居	無	求	安
子	曰	君	子	食	無	求	飽	居	無	求	安
子	曰	君	子	食	無	求	飽	居	無	求	安

민 어 사 이 신 어 언      취 유 도 이 정 언      가  
敏 於 事 而 愼 於 言 이오 就有道而正焉 이면 可  
위 호 학 야 이  
謂 好 學 也 已 나라.

일에는 민첩하고 말을 삼가면서 도가 있는 이에  
게 가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 할만하다.

- 就有道(者)而正(過)焉(사람 자, 허물과) – 사람(者)과 허물(過)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.

君子(군자)가 유학의 이상적인 인간형을 말한다 했는데, 君子의 생활 수칙(학문의 자세)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

- ✓ 敏(빠를 민) – 敏捷(민첩)
- ✓ 於(어조사 어) 事(일 사)
- ✓ 而(말이을 이) 言(말씀 언)
- ✓ 愼(삼갈 신) – 愼重(신중)
- ✓ 就(나아갈 취) – 進就(진취)
- ✓ 有(있을 유) 道(길 도)
- ✓ 正(바를 정) 焉(어조사/어찌 언)
- ✓ 可謂(움을 가, 이를 위) - ~라 할만하다. ~라 일컬을 수 있다
- ✓ 好(좋을 호) 學(배울 학)
- ✓ 也(어조사 야) 已(이미/어조사 이)

敏	於	事	而	於	言	就	有	道	而	正	焉
可	謂	好	學	也	已						
敏	於	事	而	於	言	就	有	道	而	正	焉
可	謂	好	學	也	已						
敏	於	事	而	於	言	就	有	道	而	正	焉
可	謂	好	學	也	已						

자 공 왁 빈 이 무 점 부 이 무 교 하 여  
子貢曰, 貧而無諂<sub>호대</sub> 富而無驕<sub>호대</sub> 何如

하니잇고?

자공이 여쭙길,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  
되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?

- 何如(어찌 하, 같을 여) – 직역하면 ‘어찌 ~와 같습니  
까?’인데, 보통 ‘어떻습니까?’, ‘어찌합니까?’ 정도의 관용적 표현. 此亦何如 彼亦何如(차역하  
여 피역하여, 이 차, 저 피, 이런 듯 어떠하리 저런 듯 어떠하리, 이방원의 何如歌하여가)

자공: “가난해도 당당하고, 부자라도 남을 깔보지 않으면, 그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닙니까?”

- ✓ 子貢曰(아들 자, 바칠 공, 가로 왁)
- ✓ 貧(가난할 빈)
- ✓ 而(말이을 이)
- ✓ 無(없을 무)
- ✓ 諂(아첨할 첨) – 阿諂(아첨)
- ✓ 富(부자 부)
- ✓ 驕(교만할 교) – 驕慢(교만)

子	貢	曰	貧	而	無	諂	富	而	無	驕	何
如											
子	貢	曰	貧	而	無	諂	富	而	無	驕	何
如											
子	貢	曰	貧	而	無	諂	富	而	無	驕	何
如											

자 알 가 야 미 약 빈 이 락 부 이 포 레  
 子曰, 可也<sup>이나</sup> 未若貧而樂<sup>하며</sup> 富而好禮  
 者<sup>자</sup>也<sup>야</sup>니라.

- ✓ 子曰(아들 자, 가로 알)
- ✓ 可(옳을 가) – 그렇다. 맞다.
- ✓ 也(어조사 야)
- ✓ 貧(가난할 빈) 而(말이을 이)
- ✓ 樂(즐거울 락)
- ✓ 富(부자 부)
- ✓ 好(좋을 호) 禮(예도 레)
- ✓ 者(사람 자) 也(어조사 야)

공자님 말씀하시길, 그렇긴 하지만 가난해도 즐기는 사람과 부유해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 보다는 못한 것이다.

- 未若(아닐 미, 같을 약) – 若은 如(같을 여)와 같은 뜻으로 不如(불여, ~만 못하다)와 같은 표현임. 다만 未는 완벽한 부정이 아니고 '아직 이루지 못했다(not yet)'는 뉘앙스.

공자: “훌륭하지.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, 가난을 즐기고 예를 추구하는 정도는 되어야...”

子	曰	可	也	未	若	貧	而	樂	富	而	好
禮	者	也									
子	曰	可	也	未	若	貧	而	樂	富	而	好
禮	者	也									
子	曰	可	也	未	若	貧	而	樂	富	而	好
禮	者	也									



자 공 왈 시 운 여 절 여 자 여 탁 여 마  
 子貢曰, 詩云如切如磋하며 如琢如磨이라하  
 기 사 지 위 여  
 니 其斯之謂與인저.

- ✓ 子貢曰(아들 자, 바칠 공, 가로 왈)
- ✓ 詩(시 시) - 여기서는 詩經(시경)
- ✓ 云(이를 운) 如(갈을 여)
- ✓ 切(끊을 절) 磋(갈 차)
- ✓ 琢(쥘 탁) 磨(갈 마)
- ✓ 其(그 기) 斯(이 사) 之(갈 지)
- ✓ 謂(이를 위) 與(줄/어조사 여)

자공이 말씀하시길, 시경에 “끊는 듯 가는 듯  
 쪼는 듯 문지르는 듯”이라 했으니 이것을 말하  
 는 것이군요.

- 云(이를 운) - ~를 云云하다니 可笑(가소, 웃을 소)롭군.
- 切磋琢磨(절차탁마) - 원래 玉(옥) 같은 재료를 다듬어 寶物(보물)을 만드는 행위를 표현하  
 는 것인데,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는 군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.

子	貢	曰	詩	云	如	切	如	磋	如	琢	如
磨	其	斯	之	謂	與						
子	貢	曰	詩	云	如	切	如	磋	如	琢	如
磨	其	斯	之	謂	與						
子	貢	曰	詩	云	如	切	如	磋	如	琢	如
磨	其	斯	之	謂	與						

자 알 사 야 시 가 여 언 시 이 의 고 저  
 子曰, 賜也 是 始可與言詩已矣 로다 告諸  
 왕 이 지 래 자  
 往而知來者 오이온여.

공자님 말씀하시길, 이제 너와 시경을 논할 만  
 하구나. 지난 것을 통해서 올 것을 아는 구나.

- 賜(줄 사) - 下賜(하사), 賜藥(사약)처럼 '(윗사람이) 주다'의 뜻. 반대로 '(아랫사람이) 주다'는 貢(바칠 공). 여기서 子貢(자공)의 본명(端木賜단목사).
- 諸(어조사 저, 모두 제) - 여기서는 '之於'로 '저'임. 과거(往)에(於) 것(之)을 알려주다(告).

- ✓ 子曰(아들 자, 가로 알)
- ✓ 也(어조사 야)
- ✓ 始(비로소 시) - 始作(시작). 여기서 는 부사로 '비로소', '드디어'
- ✓ 可(옳을 가) - ~할 수 있다.
- ✓ 與(더불어 여) - ~와(with)
- ✓ 言(말씀 언) 詩(시 시)
- ✓ 已(이미/어조사 이) 矣(어조사 의)
- ✓ 告(알릴 고) 知(알 지) 耒(것 자)
- ✓ 往(갈 왕) 來(올 래) - 往來(왕래)

子	曰	賜	也	始	可	與	言	詩	已	矣	告
諸	往	而	知	來	者						
子	曰	賜	也	始	可	與	言	詩	已	矣	告
諸	往	而	知	來	者						
子	曰	賜	也	始	可	與	言	詩	已	矣	告
諸	往	而	知	來	者						

자 알 불 환 인 지 불 기 지 환 부 지 인 야  
子曰, 不患人之不己知<sup>오</sup> 患不知人也<sup>니라</sup>.

공자님 말씀하시길,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,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거라.

- 不己知(불기지) – 문법대로라면 不知己(부지기, 자신을 알지 못하다)인데 순서를 바꾼 것(倒置도치).

- ✓ 子曰(아들 자, 가로 알)
- ✓ 不(아닐 불)
- ✓ 患(근심 환) – 疾患(질환)患亂(환란)
- ✓ 人(사람 인) – 他人(타인)
- ✓ 之(갈 지) - ~의
- ✓ 己(자기 기)
- ✓ 知(알 지)
- ✓ 也(어조사 야)

學而(학이)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. 人不知而不慍(인부지이불온)과 首尾相應(머리 수, 꼬리 미, 서로 상, 응할 응, 머리와 꼬리가 서로 呼應호응) 또는 首尾相關(수미상관, 관계할 관).

子	曰	不	患	人	之	不	己	知	患	不	知
人	也										
子	曰	不	患	人	之	不	己	知	患	不	知
人	也										
子	曰	不	患	人	之	不	己	知	患	不	知
人	也										